

# 성경 연구 매거진 - 10계명 세기

---

[web.archive.org/web/20120724075234/http://biblestudymagazine.com/interactive/commandments/](http://web.archive.org/web/20120724075234/http://biblestudymagazine.com/interactive/commandments/)



•  
**Bible Study Magazine**은 현재 인쇄 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메모와 강조 표시된 용어 위에 커서를 올리세요.

## 십계명 세기

마이클 S. 하이저

성경과 서구 문화 내에서 유대-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지속적인 요소 중 하나는 십계명인 십계명입니다. 비록 모두 암송할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우리 중 많은 사람, 찰턴 헤스턴)가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손가락이 두 개의 돌판에 계명을 새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목록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항상 합의해 온 내용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 심지어 기독교 내의 종파들까지도 십계명이 어떻게 나열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기하는가는 종교개혁 당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차이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의 초기 목록인 출애굽기 20:2-17의 처음 여섯 구절과 마지막 두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아래 차트는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계명의 나열과 표현의 차이점 뒤에 숨어 있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나열하면 총 10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세 구절에서는 계명의 수를 10개로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28, 신명기 4:13, 신명기 10:4은 각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세 렛 하바림 (“열 말씀”, “열 말씀”)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전통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비교)의 진술이 그 표현에 전혀 명령적인 힘이 없을 때 명령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asereth hamitsvot*(“십계명”) 대신 *asereth hadvarim*(“열 단어”)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열 가지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으로 간주한 후, 3-6절은 주제적으로 단일 금지 사항, 즉 예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구절 그룹에는 실제로 세 가지 필수 진술이 있습니다(“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조각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를 별도의 명령으로 간주하면 총계가 10개가 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은 히브리어 용어 *asereth hadvarim*(“열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공식에서는 1절을 십계명의 첫 번째 요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20장 2~6절 전체가 출발점으로 여겨지며, 명령형(“하지 말라”)은 오늘날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계명”이라는 용어를 촉발시켰다.



Reformed, Anglican,  
 & Greek Orthodox  
 Roman Catholic,  
 Lutheran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	서문 2	1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	1	
4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오직 인자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느니라.”		2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삼		2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4		삼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5		4
13 “살인하지 말라.”	6		5
14 “간음하지 말라.”	7		6
15 “도둑질하지 말라.”	8		7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		8
17a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		9
17b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당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

---

로마 가톨릭교, 성공회, 루터교가 채택한 열거법은 어거스틴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호하지만 어거스틴의 열거는 교리의 요점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66항은 “계명의 구분과 번호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해졌습니다.”라는 인정을 대표합니다. 개혁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인들도 1절을 명령으로 거부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인 4-6절 과 3절을 구별합니다. 이 입장 역시 독단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계명의 수와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이다.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출 20:17을 두 개의 명령으로 나누어 숫자 10을 달성했는데, 이는 출 20:2-6을 첫 번째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것이다. 이 이분법은 아마도 17절의 내용 전체가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 있는 주제별 그룹에 비추어 개인의 가족과 소유물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서 주제별로 그룹화하고 끝 부분에서 주제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개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말입니다!

계명을 세는 방법에 대한 수적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유대-기독교 윤리의 도덕적 핵심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세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존중하는 데 십계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